



세계정당연대의 힘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임핑 나이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역드 라운드
 (당일 출발 10시 영수증 프린트 게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김찬미.



한국 첫 금
내가 쏜다



베이징사격관 50m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이대명.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8일)이 이를 앞두고 다가오면서 세계 톱10 수상을 노리는 한국 선수단에 누가 금메달 물꼬를 터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사격과 유도가 첫 금메달 타이프를 끊는데 선의 경쟁을 벌인다. 메달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일 사격과 유도가 나란히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여자 10m 공기소총에 나란히 참가하는 전남여고 출신 김찬미(기업은행)와 김여울(화성시청)이 베이징사격장에서 가장 먼저 금빛 표적을 쏜다.

‘여전사 듀오’는 당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되는 결승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세계랭킹 1위 두리(중

국)와 색깔이 문제일 뿐 메달 주인을 가린다.

지난해 12월 쿠웨이트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김찬미가 큰 극복이 없어 두리와 우승을 다툴 것으로 보이고 기량이 상승중인 김여울도 의외로 시상대 맨 위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2006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인 기대주 이대명(한국체대)도 같은 날 남자 10m 공기권총에 출전한다.

사격에서 첫 금메달을 얻는데 실패하면 같은 날 오후 6시 베이징이공대학 체육관에서 결승이 진행되는 남자 유도 60kg급의 ‘작은 거인’ 최민호(한국마사회)가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캐기 선봉장으로 들어

9일 여자사격 김찬미·김여울 첫 도전

남자 10m 공기권총 이대명도 대기

유도 최민호 남 60kg급서 금 노려

선다. 2003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최민호는 4년 전 아테네올림픽 때 유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갑작스런 근육 경련 탓에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던 아

쉬움이 남아 있다.

2004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와 올해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제패했던 일본의 히라오카 히로아키와 최강자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사격과 유도 모두 첫날 금메달 사냥을 못한다면 공은 박태환(단국대)에게 넘어간다.

박태환은 다음 날인 10일 오전 10시20분 국가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금빛 물살을 가를 것으로 기대된다.

8관왕을 노리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가 400m 출전을 포기해 우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기록을 단축하고 있는 박태환은 라이벌 그랜

드 해켓(호주)과 개최국 중국의 장린, 미국 대표 선발전 1위로 통과한 리스 잰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마테우즈 소리모비츠(폴란드), ‘북빙’ 유리 프릴루코프(러시아)를 따돌려야 한국 수영 역사의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다.

10일까지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 주인공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1일 양궁 남자 단체전에 출전하는 임동현(한국체대), 이창환(두산중공업), 박경모(인천 계양구청)와 유도 스타 이원희의 올림픽 2연패 도전을 무산시킨 남자 73kg급의 왕기춘(웅진대)이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 박성화호 카메룬전 예상 라인업

박주영, 이근호, 백지훈, 김성용, 이정용, 김동진, 김진규, 강민수, 신광훈, 정성룡

박주영·이근호 ‘투톱’

백지훈·이정용 ‘날개’

박성화호 카메룬전 선발 윤곽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인 카메룬을 꺾 박성화호의 선발 라인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올림픽축구대표팀은 5일 오전 일찍 중국 친화도 올림픽체육공원 내 훈련장에서 1시간 가량 담금질을 했다.

대표팀은 현지시각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오전 9시)에 시작한 이날 훈련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바나나로 빈 속을 채웠으며,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기까지 했다.

훈련은 수비 전술을 다지는 데 주안점을 뒀는데 카메룬전 베스트11에 대한 박성화 대표팀 감독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박 감독은 4-4-2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투톱을 제외하고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주전급 선수들에게 주황색 조끼를 입혀 훈련을 진행했다.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김동진(제니트)-김진규(서울)-강민수-신광훈(이상 전북)으로 구성됐다.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김정우(성남), 기성용(서울)이 배치됐고 좌·우 미드필더로 백지훈(수원)과 이정용(서울)이 나섰다. 골문은 정성룡(성남)이 지켰다.

조끼를 입지 않은 공격수의 경우 박주영(서울)과 이근호(대구)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신영록(수원)은 조커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 감독은 훈련 후 ‘조끼를 입은 선수들이 카메룬전 베스트 멤버냐’는 질문에 “선수들을 바꿔가며 훈련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거의 베스트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2-1승)에서 오른쪽 갈비뼈 사이 연골을 다친 김승용(광주)은 몸 상태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박 감독은 서두르지 않고 일단 백지훈에게 왼쪽 미드필더의 자리를 맡겼다.

박 감독은 전날 박주영에게 프리킥 특별 훈련까지 시키는 등 그동안 전담 키커의 역할을 맡아 온 김승용이 선발 출전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왔다.

이날 훈련에서는 수비수들의 위치 선정과 상대에 대한 일대일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마했다.



한국선수단 입춘식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 D-3인 5일 올림픽선수촌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선수단 입춘식에서 한국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윤석민 투수 야구대표팀에 합류

대표팀 탈락 논란에 휩싸였던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사진)이 뒤늦게 베이징 올림픽 야구 대표팀에 승선했다. 윤석민은 5일 입춘식(두산·투수)이 컨디션 난조로 대표팀에서 중도하차하면서 대신 태극마크를 달고 이날 오후부터 대표팀 훈련에 합류했다.

프로야구 최근 5경기에서 10.80의 평균자책점으로 부진했던 입춘식은 지난 4일 잠실 구장에서 열린 네덜란드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2이닝동안 3피안타 2사사구로 1실점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 경기 직후 김경문 감독이 교체할 시사했다.

다승 단독 1위(12승), 평균자책점 2위(2.47), 탈삼진 공동 3위(95개)를 달리고 있는 윤석민은 대표팀 선발 논란을 딛고 뒤늦게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다.

윤석민은 선발이나 중간계투에 상관없이 전천후로 경기에 투입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림픽 소식

금메달 후보 박태환 도핑 검사

○...유력한 수영 금메달 후보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볼 선수’로 꼽힌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지난 4일 올레만 네번째 도핑검사를.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베이징에 도착해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박태환은 4일 오후 메인 수영장인 워터큐브에서 훈련을 하던 중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검사팀으로부터 전화와 받고 1시간 가량 피를 뽑고 소변을 받아 제출.

노민상 감독은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만 가려서 집중적으로 불시에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박태환)이 감기에 걸려도 약도 못 먹을 만큼 도핑에는 신경쓰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켓 ‘박태환 지켜 보자’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유형 1,500m 3연속 우승을 노리는 그랜트 해켓(27·호주)이 라이벌인 박태환의 세계 신기록 수립 가능

성에 대해 관망적 태도.

해켓은 5일 오후 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진행된 호주 수영대표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태환이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과를 주목해 보자”는 입장.

해켓은 그러나 정자 자유형 400m보다는 1,500m에 집중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는데 자유형 400m에서 작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 8월 일본국제수영대회에서 연달아 박태환에게 패한 영향이 있다는 주변의 분석.

골키퍼 정성룡 12월 결혼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축구대표팀의 ‘골 넣는 골키퍼’ 정성룡(23·성남)이 올 12월 결혼 예정 사실을 공개.

정성룡은 5일 오전 친화도 올림픽의 삼림체육공원 내 훈련장에서 1시간 가량 수비전술 훈련을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애초 올림픽 이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일찍 터졌다”며 수줍은 듯 미소.

정성룡은 동덕여대 모ρφ학과에 재학 중인 미스코리아 경남 진 출신의 두 살 연하 임미

정씨와 오는 12월 웨딩마치를 올릴 예정으로 2006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둘은 2년여 사랑을 키워왔고, 이미 올해 초 임신신고까지 한 상태.

북한 응원단 대부분 남성

○...미모의 처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응원단이 실제로는 대부분 남성인 데다 중·장년에서 노년층 여성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드러나 주변에서는 혀를 찼다는 반응.

지난 4일 북한 응원단의 도착 장면을 목격한 선양의 한 대북소식통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때처럼 여대생이나 젊은 여성으로 구성된 대규모 응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딴 판”이라고 소개.

북한이 중국에서 열린 대륙 국제스포츠대회에 대규모 응원단을 파견한 것은 지난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이후 두번째이며, 올림픽 참가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6일 선양에서 열리는 여자축구 F조 예선 북한 대 나이지리아 경기에서 첫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



“농구 야오밍·육상 류시양 성화 점화자 제외 가능성” 신화통신 보도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농구스포츠 스타인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야오밍(휴스턴·사진 왼쪽)과 허들의 ‘황색 탄환’ 류시양(사진 오른쪽)이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자 후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5일 NBA 스타 플레이어 야오밍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육상 110m 허들 금메달리스트 류시양이 베이징에 가려 있는 개막식 성화 점화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통시는 야오밍이 이날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하는 성화를 봉송하는 주자로 나설 수 있고 류시양은 지난 3월31일 베이징에서 해외 성화 봉송을 시작할 때 첫 주자로 뛰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통시는 야오밍이 대신 6일부터 3일 간 베이징 시내에서 펼쳐지는 성화 봉송에 참여할 총 841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